

모미지가리(紅葉狩)의 구절

토가쿠시산(戸隠山)에는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사라시나 공주(更科姫)라고 한다.

가을, 사라시나 공주는 시종을 데리고 산으로 들어갔다. 사라시나 공주는 붉게 변한 단풍잎을 보는 것이 낙이었다.

그녀는 시종과 함께 잔치를 벌이며 멋진 풍경을 즐겼다. 가을의 단풍은 아름답구나.

우연히 타이라노 코레모치(平維茂)라는 지위 높은 무사가 하인과 함께 사라시나 공주의 근처를 지나갔다.

사라시나 공주의 시종은 타이라노 코레모치를 발견하고 "함께 아름다운 단풍의 경치를 즐겨요"라고 권했습니다.

코레모치는 사라시나 공주와 만나자마자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공주가 코레모치에게 권했고, 그는 과음으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코레모치는 산속에있는 여자도깨비를 퇴치하라는 천왕의 명령을 까맣게 잊은 채 깊은 잠에 빠져 버렸습니다.

코레모치가 잠이 들자 공주와 그녀의 시종은 모습을 감춥니다.

코레모치가 자고 있을 때 타케우치신(竹内の神)은 급히 토가쿠시산으로 향했습니다.

하치만신(八幡神)은 전쟁의 신입니다. 그 강한 신을 따르는 신이 타케우치신 입니다.

깊은 잠에 빠진 코레모치의 꿈 속에 타케우치 신이 나타나 코레모치에게 경고합니다.

"너에게 술을 마시게 한 아름다운 공주와 그녀의 시종은 토가쿠시산에 사는 여자도깨비다.

그대로 잠에 빠진다면 여자도깨비는 너를 죽일 것이다. 위대한 하치만신의 칼은 너에게 주겠다.
이 칼로 여자도깨비와 싸워라"

꿈에서 깬 코레모치는 타케우치 신의 경고를 충분히 이해했다.

신으로부터 받은 검을 가진 타케우치는 싸울 준비가 되어있었다.

검에 코가라스마루(小烏丸)라고 이름 지었다.

코레모치는 격렬하게 여자도깨비와 싸워 결국 승리했다. 코레모치는 토가쿠시산에 사는 여자도깨비를 퇴치했다.

코레모치는 타케우치 신에게 감사했다. 강력한 검을 전해준 하치만신에게도 감사했다.

· 사라시나 공주가 시종인 오만을 데리고 산속 단풍을 감상하기 위해 연회를 열었다. 거기서 여자도깨비 사냥을 명받은 코레모치 일행이 지나갑니다.

코레모치는 그녀들에 "부디 함께"라고 유혹당해 연회에 함께하게 됩니다. 공주는 이 세상 사람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술이 권해지고 기분이 동한 타케우치는 만취해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것을 지켜본 공주일행은 돌연 모습을 감춰버립니다.

때마침 그 무렵 하치만대보살(八幡大菩薩)을 따르는 타케우치 신이 급히 토가쿠시산으로 향했습니다. 실은 코레모치를 농락한 공주일행은 토가쿠시산의 여자도깨비들이었습니다. 산신(山神)이었던 타케우치 신은 코레모치의 꿈에 나타나 위기를 경고하고, 하치만대보살로부터 하사받은 신검(코가

라스마루 (타이라노일가의 가보)를 코레모치에게 전수합니다.

그리하여 꿈에서 깬 코레모치는 검을 짊어지고 여자도깨비를 쫓습니다. 압도적인 마력으로 위협해 오는 여자도깨비에게 용감히 맞선 코레모치는 치열한 전투 끝에 여자도깨비를 멋지게 퇴치합니다.